



최근 생명보험산업의 위험조정성과

조영현 연구위원

2013년 이후 생명보험산업의 위험조정자본이익률(RAROC)이 상승하고 있음. RAROC 상승은 생명보험산업의 사업 효율성이 개선되고 있음을 의미함. 이러한 RAROC 상승의 요인으로는 위험손해율 하락에 의한 보험부문 이익 증가를 들 수 있음. 아울러 2013년부터 본격화된 생명보험회사들의 인원·점포 감축에 의한 비용 절감도 최근의 RAROC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보임. 생명보험회사들의 최근 사업효율성 제고는 손해율 개선 등 질적 개선과 임직원·점포 감축을 통한 양적 개선을 병행한 결과로 판단되며, 향후 사업의 질적 개선을 통한 RAROC 제고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2013년 이후 생명보험산업의 위험조정자본이익률(RAROC)¹⁾이 상승하고 있음.

- RAROC은 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위험대비 이익률을 의미하며, 이 값이 높을수록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할 수 있음.
- 생명보험산업의 RAROC은 2013년 9.7%에서 2016년 9월 13.6%(연율화)로 상승세이며, 특히 대형사와 외국사의 RAROC 증가가 두드러짐.
 - 단, 2016년 4/4분기에는 변액보증준비금 적립과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 육류담보대출 충당금 등의 일회성 비용발생으로 2016년 전체의 RAROC은 13.6%보다 낮을 전망이다.
- 특히, 2014년부터 RBC제도가 강화되어 동일 위험에 대한 요구자본(본고에서 사용한 RAROC의 분모)이 증가²⁾하였음에도 RAROC이 상승한 점에 주목할 만함.
 - 한 예로써, 생보사 요구자본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신용위험액의 신뢰수준이 95%에서 단

1) RAROC(Risk-adjusted Rate on Capital)은 기대당기순이익을 경제적 자본으로 나눈 값이며, 보험회사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이 창출하는 순이익을 의미함. 본고에서는 데이터 제약으로 인하여, 조정된 당기순이익과 RBC제도의 지급여력기준금액(요구자본)을 각각 기대당기순이익, 경제적자본의 대응치로 하여 RAROC을 추정하였음. 또한 지급여력기준금액 이상의 자본은 무위험자산(국고채 1년)에 투자되었다고 가정하여 그 이자수익만큼을 당기순이익에서 제외하여 당기순이익을 조정함.

2) 2016년 9월 기준 생명보험회사의 요구자본은 2013년 말 대비 44% 증가함.

계적으로 99%(2016년 말)까지 상향조정되었는데, 이는 동일 신용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을 1.5배 증가시켰음.

〈표 1〉 생명보험산업의 위험조정자본이익률(RAROC) 추정치

(단위: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9월
대형사	9.9	8.8	9.7	11.4	12.6
중소형사	16.7	8.7	7.1	11.7	10.0
외국사	23.8	16.2	17.4	14.0	22.7
전체	12.7	9.7	10.3	11.9	13.6

주: 1) 대형사는 교보, 삼성, 한화이며, 그 외 최대주주가 외국사인 경우는 외국사, 국내사인 경우는 중소기업사로 분류함.
 2) 농협생명, IBK연금보험, 교보라이프플래닛은 제외함.
 3) 역년(calendar year) 기준으로 계산, 2016년 9월의 RAROC은 연율화함.
 자료: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산함.

■ 이러한 RAROC 상승의 요인으로는 위험손해를 하락에 의한 보험부문 이익 증가를 들 수 있음.

- 위험손해율은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 생명보험회사의 보험부문 이익(위험률 차이)이 증가한 것으로 보임.

〈표 2〉 생명보험산업의 위험손해율

(단위: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9월
대형사	85.9	84.6	85.1	80.8	80.0
중소형사	97.2	95.2	95.9	91.5	90.3
외국사	93.7	91.2	90.0	84.3	80.2
전체	89.5	87.9	88.0	83.5	81.9

주: 1) 위험손해율은 사망보험금을 위험보험료로 나눈 값.
 2) 농협생명, IBK연금보험, 교보라이프플래닛은 제외함.
 3) 역년(calendar year) 기준으로 계산함.
 자료: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산함.

■ 아울러 2013년부터 본격화된 생명보험회사들의 인원·점포 감축에 의한 비용 절감도 최근의 RAROC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보임.

- 임직원은 2013년 말부터 2016년 9월까지 11.7%가 줄어들었으며, 감원율은 대형사가 17.0%로 가장 높음.
 - 인력 감축은 당기에 퇴직위로금 등의 지급으로 일시적인 비용증가가 수반되므로 당기의 수익성을 악화시키지만, 이후에는 비용이 대폭 절감되는 효과가 있음.

- 예를 들어, 인력감축을 실행한 A사(대형사)는 조정수입보험료 대비 인건비율이 3.5%(2013년)에서 2.7%(2016년 1~9월)로 0.8%p 하락하였음.³⁾
- 점포는 2012년 말부터 2016년 9월까지 17.5%가 감소하였으며, 외국사의 경우 24.5%로 가장 높은 감축 비율을 보임.

〈표 3〉 생명보험산업의 임직원 및 점포 현황

(단위: 명, 개,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9월	증감률
임직원	대형사	15,783	16,131	14,217	13,322	13,381	-17.0
	중소형사	7,272	7,279	7,059	7,126	7,083	-2.7
	외국사	5,760	5,901	5,648	5,599	5,412	-8.3
	전체	28,815	29,311	26,924	26,047	25,876	-11.7
점포	대형사	2,496	2,374	2,172	2,118	2,062	-17.4
	중소형사	1,145	1,139	996	988	1,004	-12.3
	외국사	866	805	738	634	654	-24.5
	전체	4,507	4,318	3,906	3,740	3,720	-17.5

주: 1) 대형사는 교보, 삼성, 한화이며, 그 외 최대주주가 외국사인 경우는 외국사, 국내사인 경우는 중소기업으로 분류함.
 2) 농협생명, IBK연금보험, 교보라이프플래닛은 제외함.
 3) 임직원 증감률 계산기간은 2013년부터 2016년 9월까지이며, 점포 증감률 계산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 9월까지임.
 자료: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생명보험회사들의 최근 사업효율성 제고는 손해율 개선 등 질적 개선과 임직원·점포 감축을 통한 양적 개선을 병행한 결과로 판단되며, 향후 사업의 질적 개선을 통한 RAROC 제고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추가적인 양적 감축은 비용절감 효과보다 중장기적 성장성 및 평판 악화 등 부정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음.⁴⁾
- 사업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사업부문별 RAROC 관리가 강화되어야 함.
 - 위험 대비 이익이 높은 사업(혹은 상품)의 확대 및 유지율 제고, 손해율 개선, 자산운용의 효율성(투자위험 대비 수익) 제고 등이 강화되어야 함. **kiri**

3) 조정수입보험료는 퇴직연금 및 퇴직보험의 수입보험료를 제외하고, 일시납은 10%만 반영한 수입보험료임; A사 IR자료 참조.
 4) 김해식, 김세중, 김현경(2016), 『저성장 시대 보험회사의 비용관리』, 조사보고서, 보험연구원 참조.